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4. 7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전도서·아가·이사야·누가복음
구역예배(남성구역예배)·G.B.S.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4장 ~ 누가복음 8장
- 16 1과 주의 족으심을
- 24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9장 ~ 누가복음 14장
- 32 2과 하나님의 선택
- 40 매일성경묵상 전도서 8장 ~ 전도서 12장
아가 1장
- 48 3과 속이고 속는 자, 야곱
- 56 매일성경묵상 아가 2장 ~ 아가 7장
- 64 4과 인생의 참된 주인
- 72 매일성경묵상 아가 8장
이사야 1장 ~ 이사야 3장
- 76 남성구역예배

7

July 2014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누가복음 4장	2 누가복음 5장
6 제5차 전국사 학추경시주일	7 누가복음 9장	8 누가복음 10장	9 누가복음 11장
13	14 전도서 8장	15 전도서 9장	16 전도서 10장
20	21 아가 2장	22 아가 3장	23 아가 4장
27	28 아가 8장	29 이사야 1장	30 이사야 2장

8

Augu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 누가복음 6장

4 누가복음 7장

5 누가복음 8장

10 누가복음 12장

11 누가복음 13장

12 누가복음 14장

17 전도서 11장

18 전도서 12장

19 아가 1장

24 아가 5장

25 아가 6장

26 아가 7장

31 이사야 3장

교회 주요 일정

7월 6일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나의 주요 일정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⑪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히 10:23).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요 3:1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보증이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 13:6).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히 13:8).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히 13:20~21).

2014년 7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남성구역예배)·G.B.S.

HOLY BIBLE

본문 · 누가복음 4장 · 찬송가 200장

●●●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항상 유혹합니다(약 1:13~15). 심지어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도전하여 그분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이러한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3절)고 시험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3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마 4: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 주며 자신을 섬기고(7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내라고 시험했습니다(9절).

그러나 예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 6:13),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12절)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한 영적 승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서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과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눅 4:8)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Lk. 4.8)

- 회당(15절) : 쉬나고게 '원' (함께와 '하고' 인도하대의 합성어, 바벨론 유수 때 생겨난 예배처, 학교, 재판정 구실도 하였다.)
- 가버나움(31절) : 나훔의 집이란 뜻,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어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곳, 갈릴리 진도 지역의 중심지.

기도제목 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달고 오묘한 말씀의 맛을 맛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5장 · 찬송가 202장

●●●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후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1~3절).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4절)고 명하셨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베드로였지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5절)라고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지난밤의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심지어 자신만의 생각이나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비밀을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눅 5:11)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Lk. 5:11)

• 제네라(總) : 갈릴래의 갈릴라 지역 갈릴라 호수 북서쪽의 벳후렌 중야 지방의 지방의 북쪽에는 갈릴라 호수 남쪽에는 약달라 마을이 위치해 있다. 갈릴라 호수의 가장 깊은 곳으로도 사용된다.

기도제목 ①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감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감동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종직자장르,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의 불을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6장 · 찬송가 43장

●●●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 그만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1~5절). 또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6~11절).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로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예표하며(창 2:1~3),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신 5:15)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맞보는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휴식을 위한 날로서(출 20:10)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소망하는 날입니다(히 4:3).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왜곡하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난은 율법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비난에 안식일의 근본정신이 문자적인 것에 있지 않고 사랑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삼상 21:1~6).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5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바빠 움직이며 교회 일과 행정에 마음을 쏟다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놓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눅 6:5)

Then Jesus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Lk. 6:5)

- **잘라, 비벼(1절)** :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 행위로, 비비는 것은 타작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런 행위는 유대인의 율법 기준에서는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에 해당된다.
- **진설병(4절)** : 직역하면 '진설된 떡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소의 떡상에 6개씩 두 줄로 진설된 무교병, 새것과 교체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다.

기도제목 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7장 · 찬송가 314장

●●●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 예수님의 발아래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38절).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마음에 큰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환히 아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부르시어 비유로 오백 데나리온 빚진 자와 오십 데나리온 빚진 자의 탕감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탕감 받은 사람 둘 중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빚진 자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 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끔찍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그만큼 더 예수님을 찾으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자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둘 중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눅 7:42)

Neither of them had the money to pay him back, so he cancelled the debts of both.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Lk. 7:42)

- 권43절 : 사탄을 무릎까지 운반하는 상태 두 종류 없었고 매장하려는 사탄은 강대 동굴 무덤에 놓였다.
- 데나리온 143절 : 그리스도의 드라마와 같은 거리의 로마 은행, 100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봉급.

기도제목 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날들로 가득 차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8장 · 찬송가 371장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밀려오는 광풍 앞에서는 여지없이 두려움으로 인해 떨며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황급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24절).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25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기에 대자연마저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마 16:16)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요 1:1).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많은 수치를 친히 당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빌 2:5~8).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광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눅 8:25)

“Where is your faith?” he asked his disciples. In fear and amazement they asked one another, “Who is this? He commands even the winds and the water, and they obey him.”(Lk. 8:25)

- 군대(30절) : 부대 특성에 따라 3천, 4천 2백, 5천, 6천 6백 명 등으로 구성된 로마의 가장 큰 부대 단위 1개 군단.
- 무저갱(31절) : 바닥 없는 깊은 수렁.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탄의 추종자들이 결박될 임시 처소.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맥추절과 교회

유대인들은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켰다. 그 첫째는 유월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였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감사절로 유월절이 지난 7주 후 50일 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 일 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고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절기를 지켰다.

이 절기들은 신약의 예표로서 영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한다. 맥추감사절은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고, 수장절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의 삶이 열려지는 것을 상징한다.

맥추감사절은 곡물을 수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의 하나로 보리와 밀 추수 직후에 거행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칠칠절, 즉 오순절과 관련을 갖는 날이다.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초실절 절기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이 날은 7주 전에 시작한 곡물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엄숙한 가운데 하루 동안만 행해졌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의미로 교회에서 더 크게 기념된다. 오순절은 120명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

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날이다. 아울러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 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다. 참으로 중요한 날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도 모르고 오늘날 도시 교회에서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도시 교회나 농촌 교회를 막론하고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여 우리가 십자가 공동체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토록 복 주신 은혜의 날이다. 이런 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1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주의 죽으심을

|초점|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살라

|찬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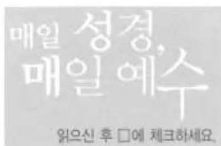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본문| 고린도전서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6 주일

7 월요일
☐ 누가복음 9장

8 화요일
☐ 누가복음 10장

9 수요일
☐ 누가복음 11장

10 목요일
☐ 누가복음 12장

11 금요일
☐ 누가복음 13장

12 토요일
☐ 누가복음 14장

※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 ① 성부 하나님
- ② 성자 예수님
- ③ 성령 하나님
- ④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함

※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요 3:16 _____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비애로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 가운데 자녀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수치와 고통 가운데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자녀를 수치와 고통 가운데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희생과 수고로 뭉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마 16:21 _____

예수님은 죽임당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결코 도망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3:12).

세상에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하여 몸을 불사르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롬 8:26 _____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헌신을 결단함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어떤 헌신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1) 가 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이 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마 16:24 _____

2) 영혼 의 사역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청됩니다.

요 12:24 _____

썩어온 썩지 않으면, 썩이 나지 않으며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알의 썩어지는 썩앗이 되셨습니다.

※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썩어지는 썩앗처럼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결단함

※ 성찬의 식탁에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결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신 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 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며, 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에 대해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과 새로운 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우리가 성찬의 식탁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믿음의 기도 |

- 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 ② 맥추감사주일에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늘 결단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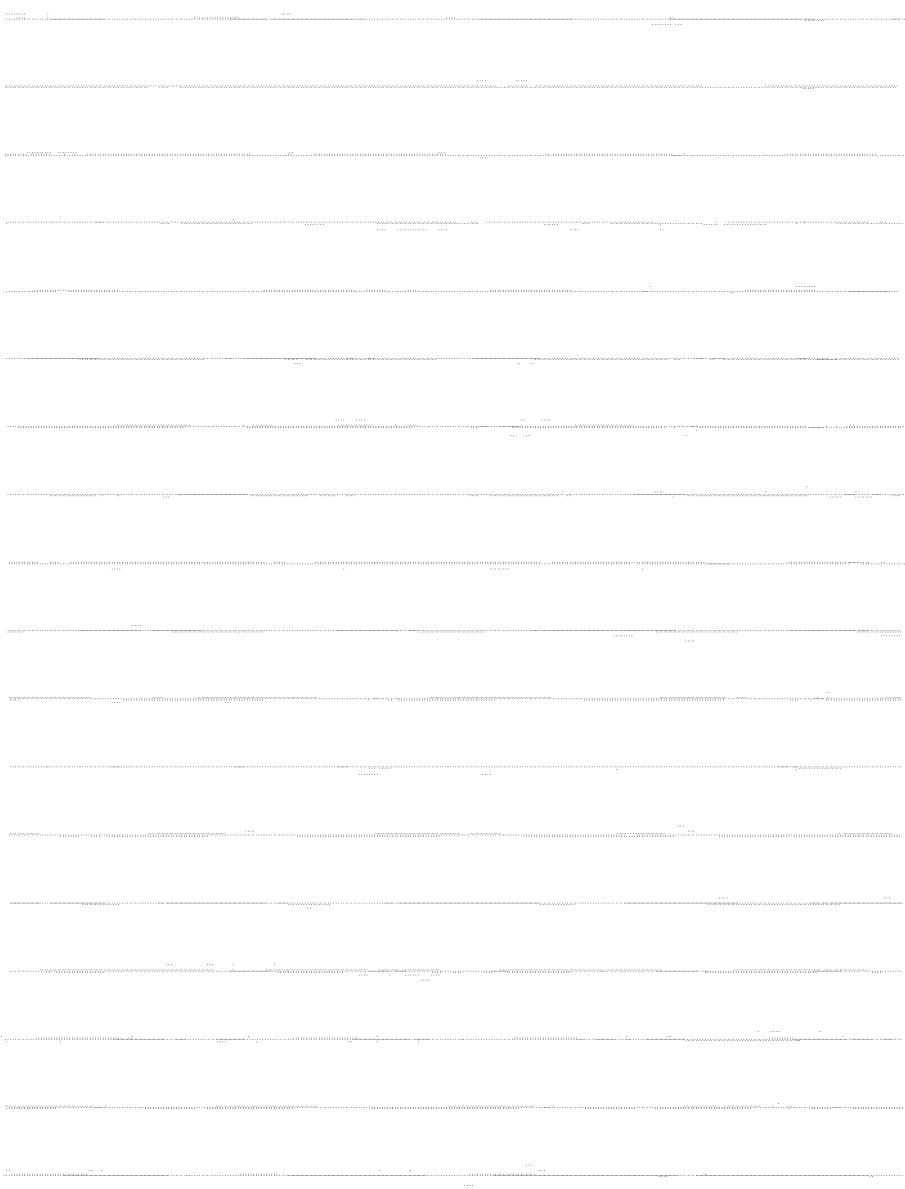
그리스도께 순종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1



본문 · 누가복음 9장 / 찬송가 · 150장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임박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영향을 받은 몇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57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우도 풀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잡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58절).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62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자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재심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서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세는 준비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만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들이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차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62)

Jesus replied,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Lk. 9:62)

- 본문 57절: 원뜻은 “내 뜻을 이루는 자, 나라 임무를 다스리는 영주”
- 사바리이인(52절): 사바리이: 자람의 원주민. 이들은 율이(이스라엘의 열방) 후 밋수르인과 거리강물이 유민함으로써 순수 혈통이 더럽혀져 유대인들로부터 차원을 받았다.

기도제목 ①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사백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10장 / 찬송가 · 435장

●●●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반된 태도를 지적하시며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취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하여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을 받아 그들의 집에 유하셨습니다(38절).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고(40절), 마리아는 주님의 발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했습니다(39절). 여기서 무심한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가 말씀에 열중하는 것에 깊은 의미를 두셨습니다(41~42절).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는 데 있었던 것에 반해 마리아는 말씀을 청종하며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준비하는 일이 많아 우리의 심령이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분주하여 교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좋은 편을 택하는 일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눅 10:39)

She had a sister called Mary, who sat at the Lord's feet listening to what he said. (Lk. 10:39)

• 전대(4절) : 지갑 돈 넣는 주머니

• 고라산(13절) : 가버니움 북쪽 3km 지점에 있는 불신 도시

• 여리고(30절) : 예루살렘 북서쪽 36km 지점에 위치한 고도(古都). 해발 760m의 예루살렘에서 해수면보다 250m 낮은 여리고로 향하는 길은 급한 내리막 길이었으며 지형이 험악하여 강도들의 출현이 잦았다.

기도제목 ① 내가 하려는 교만함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11장 / 찬송가 · 204장

●●●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도 이를 지켜보던 군중들은 그 일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14~15절). 여기서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사탄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혼란스러워하는 군중들이 이 기적이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분쟁하는 집안이 무너지는 예를 말씀하심으로써 군중들의 혼란을 해결하십니다(18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강한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에 의해 제압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21~22절).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고 더 강한 자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사탄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던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27절). 여인은 침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고백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28절).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자신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눅 11:28)

He replied, "Blessed rather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ey it." (Lk. 11:28)

- 바알세불(18절) : 히브리어 '바알'세불 (따리와 왕의 헬라어 용어, 불레셋 도시의 수호신)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 사탄의 별명.
- 운행(42절) : 행어 진행, 운반제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에 초은, 일행, 궁중인.

기도제목 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전도자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12장 / 찬송가 · 492장

●●●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적대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핍박은 필연적입니다(1~12절). 중반부에는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일시적이고 온전치 못한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적인 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13~34절). 주님은 천국 도래의 결정적 계기가 될 예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35~59절).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종말에 대비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35~48절). 마지막 날까지 복음으로 인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49~53절).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견뎌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로 물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난 후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눅 12:32)

"Do not be afraid, little flock, for your Father has been pleased to give you the kingdom. (Lk. 12:32)

• 지옥(5절) : '한놈의 굴짜기'란 뜻.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태우는 불이 끓어오르고, 물레 우렁에게 인신제사가 행해졌대(왕하 23:10). 따라서 지옥은 죄악에 대한 형벌의 장소로 간주되었다.

기도제목 ① 넓은 길을 걷기 위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으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13장 / 찬송가 · 489장

●●● 안식일 치유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악의적으로 주님과 논쟁했습니다(10~17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가미하는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잘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 법의 본질은 무시하고 형식만 취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인을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이는 안식일을 범함이나 아니라 사랑의 사역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해야 했음에도 교만하여 예수님과 논쟁하려 했습니다.

격자쌍과 누룩의 두 비유는 천국의 도래가 당장에는 미약해 보이나 이후 온 땅에 확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18~21절). 이어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22~30절). 구원받을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직 참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심은 죄안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29절)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눅 13:16)

Then should not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whom Satan has kept bound for eighteen long years, be set free on the Sabbath day from what bound her? (Lk. 13:16)

• 빌라도(17절):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 지파를 다스린 로마의 6대 총독(AD. 26~36년). 그는 성전에서 저서드리면 중에 소요를 일으킨 결발파 출신 열심당원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기도 했다.

• 말(24절): 포룸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 구약의 소(소)에 해당. 1소는 7332리터.

기도제목 ① 교만함 속에 있는 것을 떨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소서. ② 종헌교회의 재단들을 지·통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기공·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14장 / 찬송가 · 374장

●●●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는 안식일의 수종병자 치유 사건에 대해서(1~6절), 중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잔치에 참석하시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에 대해 교훈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합니다(7~24절).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초청장을 보냈지만 많은 이들이 육신적 문제에 얽매어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 초대받았던 자들은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4장의 후반부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주의 제자 된 자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요청되는 각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는 천국은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과 그분의 진리를 거부하며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좇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는 사탄의 엄청난 압력과 갈등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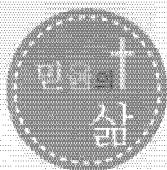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7)

And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Lk. 14:27)

- 수족병(2절) :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간장, 신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
- 겨리(19절) :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함께 끄는 쟁기. 여기서는 두 마리를 한 단위로 하여 가족을 생하는 단위.

기도제목 ① 나의 우선순위에 주님만 있게 하소서. ②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순종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온종일 그리고 매일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며 명하시며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서 또한 그의 독생자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섭리를 마련해 놓으셨다.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온종일 역사하시게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생활로 들어가는 데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과 그를 기쁘게 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겠다는 절대적인 순종의 서약 또는 전인격의 포기가 요구된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불순종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하신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버리려고 애쓰고 있는가?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가장 귀한 보화 중의 하나이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싫어했던가! 그들은 순종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또한 그 넘치는 축복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그의 순종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순종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1)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하나의 생활원리였다.
- (2)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하나의 기쁨이었다.
- (3)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다.
- (4)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다.
- (5)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주님의 겸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 (6)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자. 그리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 즉 죽기까지 순종하는 생활에 진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에서 그의 모든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 앤드류마레이

2

주간총회에 개제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하나님의 선택

| 초점 |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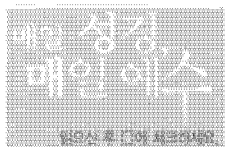
| 찬송 |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도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본문 | 창세기 25:19~23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13 주일

14 월요일

☐ 전도서 8장

15 화요일

☐ 전도서 9장

16 수요일

☐ 전도서 10장

17 목요일

☐ 전도서 11장

18 금요일

☐ 전도서 12장

19 토요일

☐ 아가 1장

※ 아래의 성경 인물들이 갖고 있던 문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라, 리브가, 한나, 엘리사벳

생명의 주인

창 25:21 _____

성경에서 '불임'이라는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삼상 1:5 _____

눅 1:36 _____

우리는 불임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 9:3 _____

다툼의 시작

창 25:22

두 명의 사내 아이들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복
중에서만이 아니라 평생 서로 격렬한 갈등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창 27:42:
32:11).

이 싸움은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개인이 싸우면 그 영향력이 미미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인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삼하
8:13).

시 137:7

두 아이에 의해서 시작된 이러한 심각한 다름은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두 나라간의 싸움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예서의 후손인 □□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암 1:11 _____

※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이 네 □□에 있구나 두 □□이 네 □□에서부터 나누어리라 이 □□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창 25:23).

하나님의 계획

‘□□□’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민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복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할 민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보다 인간적인 욕심을 끊임없이 드러냈고,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했습니다.

※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분명한 진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소서.
- ②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천국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 ③ 출현교회의 온 성도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6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T. 652-62004, 648, 649 / E-mail. ceasms77@naver.com

본문 · 전도서 8장 / 찬송가 · 552장

●●●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1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 기자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3~15)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닮고 따르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과 같아지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생활과 같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하여 합쓰는 것이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죄로 물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전 8:7)

Since no man knows the future, who can tell him what is to come?(Eccl. 8:7)

• 물라가기를 금하게(3절) : 문자적으로 ‘너는 금하게 떠나가다’는 뜻으로, 산속한 배신을 말한다. 즉 자기 학문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며 의 뜻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여름심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전도서 9장 / 찬송가 · 456장

●●●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1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 시요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8~29).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갑자기 세상의 풍랑이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겁에 질려 파도에 휩쓸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임이니라(전 9:1)

So I reflected on all this and concluded that the righteous and the wise and what they do are in God's hands, but no man knows whether love or hate awaits him.(Eccl. 9:1)

•미친 마음(3절) : 어리석고 미련한 심령

•네 의복을 항상 희게(8절) : 성경에서 '흰 의복'은 순결과 거룩과 기쁨으로 상징한다. 여기서는 '항상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전도서 10장 / 찬송가 · 526장

●●●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15절). 어리석은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이 세상과 켜어져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헛된 일로 스스로를 곤비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사 55:2)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피곤해 젖어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수가 성 여인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이 목마른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세상의 것을 아무리 누려도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번영은 오히려 번민만 더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참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명의 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목마른 자들을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전 10:15)

A fool's work wearies him; he does not know the way to town. (Ecc. 10:15)

- 자리를 떠나지 말라(4절) : 내 직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다. 어 말 속에는 ‘주권자를 거역하거나 반역하지 말자는 뜻도 담겨 있다.
- 물들을 떠내는 차는 그로 말미암아 성할 것이요(9절) : 채석장에서 일하는 차는 돌에 다칠 것이며.

기도제목 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히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모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전도서 11장 / 찬송가 · 496장

●●●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는 말을 37회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생사가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1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욥 22:24~25)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옛날에 애굽의 나일 강이 범람할 때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강물 위에 씨앗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던진 씨앗은 강물 밑바닥에 가라앉았고, 얼마 후 물이 빠지면서 기름진 토양이 그 씨앗들을 덮어주어 싹이 난 후에는 풍성한 수확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곧 영생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마 13:1~9).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은 만민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눅 2:10~11). 그 씨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영생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던져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전 11:6)

Sow your seed in the morning, and at evening let not your hands be idle, for you do not know which will succeed, whether this or that, or whether both will do equally well.(Eccl. 11:6)

• 감감한 날(8절): '허두운 날'이란 뜻이기보다 비유적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하여 슬픔이 넘치는 날' 혹은 '죽음의 날'이란 뜻이다.

기도제목 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총천교화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전도서 12장 / 찬송가 · 154장

●●●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13~14절).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한 것, 말한 것, 행한 것, 이 모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는 결국 드러나서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단번에 구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3~15).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For God will bring every deed into judgment, including every hidden thing, whether it is good or evil.(Eccl. 12:14)

- 창조주를 기억하라(1절) :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며, 또 인생의 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 앗을살하는 자들(3절) : 음식을 씹는 자마를이란 뜻이다.

기도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 솔로몬은 아가서의 서두에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2~3절).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을 포도주와 당시 왕이나 왕비, 귀족들이 사용하는 품위 있고 값비싼 향기름(나드향)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이루어진 거룩한 사랑을 비유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리”(엡 5:2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참된 가치와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십자가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돌이 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세우가기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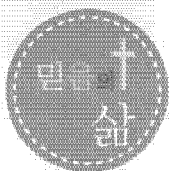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아 1:15)

How beautiful you are, my darling! Oh, how beautiful! Your eyes are doves.(Song, 1:15)

• 계달의 장막(5절) : ‘계달’은 ‘흑인’이란 뜻으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의 차남 자손이다. 이들은 주로 북아라비아에 거주했고,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에서 생활했다.

기도제목 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복음 (The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16~17)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진실로 사랑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전 15:3~4). 한 때 바울은 복음을 대적했던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행 9:4~5). 그리고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행 9:22)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나머지 삶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 바쳤다.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전 2:2).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복음을 전했다(행 16:23~25, 31). 바울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다. 복음을 전하는 내내 그는 지위와 빈부를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권력자 등 모든 사람들 앞에 섰다. 바울에게 사람의 지위와 신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다. 바리새인이었던 그에게 '의로움'이라는 말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한때 그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바울은 알게 되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완전히 뒤엎어졌다. 영의 눈으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구원의 문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 바울을 더욱더 열정적인 전도자로 만들었다. 복음전도를 통해 그의 삶은 모험과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또는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날씨가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에 대한 말은 꺼내기 어려워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편에서 것을 주저하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아멘.

3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속이고 속는 자, 야곱

|초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찬송|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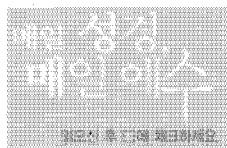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본문| 창세기 47: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참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20 주일

21 월요일

□ 야가 2장

22 화요일

□ 야가 3장

23 수요일

□ 야가 4장

24 목요일

□ 야가 5장

25 금요일

□ 야가 6장

26 토요일

□ 야가 7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 애굽 왕의 앞에 서게 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창 47:9).

※왜 야곱은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까?

속이는 자, 야곱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 리브가도 한몫을 감당했습니다.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그릇된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창 27:6~10).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두 아들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언약을 이미 주셨음에도 그녀는 믿음의 아닌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맹목적 편애라는 그릇된 자식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피를 낸 어머니 리브가는 오히려 에서와 야곱을 원수로 만들었으며(창 27:42), 야곱을 도망자가 되게 했습니다(창 27:43). 그리고 그 자신도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장자의 욕심을 가지고 있던 야곱 역시 어머니의 계략에 동조하였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만망할 정도입니다(창 27:20).

속는 자, 야곱

갈 6:7

야곱이 형에게 행했던 속임수는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창 29:20~25).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칠 년을 일했으나,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원하지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다시금 칠 년이라는 세월을 일했으나, 그는 결국 두 배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창 31:6~7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속게 되었습니다(창 37:31~35).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 이스라엘

창 47:9

속이고 속는 세월을 통해서 야콥은 매우 고생스러운 인생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에서의 갈날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반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십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동을 착취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는 바람에 요셉을 만나기까지 긴 세월을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행 20:24

딤후 4:7

은혜 아니면

속이고, 속는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야곱이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서 수시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보복을 피해 도망하던 그를 □□ 에서 만나 주셨고(창 28장),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그가 □□ 나루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만나 주셨습니다(창 32장).

결국 그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 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 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 하지 않으시랴”(민 23:19).

※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35~39을 읽은 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 ① 진실을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 ②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 ③ 충현의 온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 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본문 · 아가 2장 / 찬송가 · 430장

●●● 구원의 초대장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솔람미 여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1절). 사론은 평원을, 수선화나 백합화는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특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의 순종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숨김없이 아뢰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죄 사함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막 14:42)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자고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동안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일어나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아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My lover spoke and said to me, "Arise,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nd come with me." (Song, 2:10)

- 사론의 수선화(1절) : 사론 : 평원에 피어난 풀꽃. 이는 뽕 해충없이 자랄까? 꽃이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 여유(15절) : 비유적으로 병행하는 것. 영적으로 회개할 때(15절)는 사탄의 세력을 뜻한다.

기도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진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1절).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즉 임마누엘의 은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솔라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그 자체가 방황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신자라 할 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2절). 큰 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마 7:13).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라”(빌 2:6~8).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을 신자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아 3:2)

I will get up now and go about the city, through its streets and squares; I will search for the one my heart loves. So I looked for him but did not find him.(Song. 3:2)

-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3절) : 성내의 안전을 위해 돌아다니는 파수꾼이나 야경꾼.
- 몰약(6절) : 감람과에 속하는 관목인 발삼나무. 이 나무에서 얻어진 방향성 나무진은 극상품 향으로 알려졌다.

기도제목 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아가 4장 / 찬송가 · 442장

●●● 솔로몬은 솔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7절).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 솔람미 여인은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 투성이인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어떤 아름다움도 의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죄인의 모든 흠이 가리어졌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의 율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기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22).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총을 덧입어 오늘도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닫은 우물이요 봉헌 샘이로구나(아 4:12)

You are a garden locked up, my sister, my bride; you are a spring enclosed, a sealed fountain. (Song. 4:12)

● 잠근 동산(12절) : ‘동산’은 비유적으로 ‘풍성한, 평화로운, 행복’을 뜻한다. 이것이 잠겼다는 것은 신부가 진영매개인 허용된 행위가 가뭄을 경조하기 위해서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아가 5장 / 찬송가 · 503장

●●● 사랑하는 자가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초청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사 55: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 성 여인을 찾아가시고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을 부르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소망 없는 인생을 부르시고, 죄성에 속박되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요 4:14).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인생의 참된 구원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깨닫고 난 후,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8절)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은총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대(아 5:16)
His mouth is sweetness itself; he is altogether lovely. This is my lover, this my friend, O daughters of Jerusalem. (Song. 5:16)

•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6절) : 그가 떠난 것을 내가 애타게하였을 때에 내가 거의 죽게 되었구나라는 뜻이다.

기도제목 ①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본문 · 아가 6장 / 찬송가 · 501장

●●●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2절).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3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더욱 갈망합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살전 5:10).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 일 4: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의 은총을 얻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아 6:3)

(I am my lover's and my lover is mine; he browses among the lilies. (Song, 6:3))

- 디모새4절 : 기쁨, 만족할 미란 뜻을 지닌 도시로, 여로보암 왕후의 오도려 왕까지 왕궁에 위시라던 북이스라엘의 성도,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다.
- 3절을 세운 근대4절 : 꽃밭을 헤집구는 자들이란 뜻이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부의 순결함을 강조한 표현이다.

가도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가득 채워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와 재단들(유지·동산·복자)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가도노트

본문 · 아가 7장 / 찬송가 · 410장

●●●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신체를 시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시적 표현은 모두 신약의 교회와 신자를 예표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13절)을 네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원래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아 1:5~6). 그러나 그녀는 솔로몬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은총을 얻었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교회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골 1:21~22).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비밀의 은총을 우리는 간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복음은 교회와 신자를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을 심히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5).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르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신자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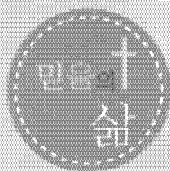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아 7:12)

Let us go early to the vineyards to see if the vines have budded, if their blossoms have opened, and if the pomegranates are in bloom-- there I will give you my love. (Song, 7:12)

• 백합화로 누른 밭(2절) : 술람미 여자의 아랫배가 백합화로 울타리치듯 감만 곡식 더미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뜻함과 아울러 그녀의 풍성한 생산력을 칭찬하는 말이다. 이는 예표론적으로 볼 때 성도의 내적 삶이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것이어야 함을 암시한다.

기도제목 ① 찬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오 히려 예수님을 찾았더니

힘든 선교 훈련 과정이 끝난 후 미얀마로 갔습니다. 첫날, 선교 사역지를 가는 과정에서 사원을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 알아보니 모두 진짜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문득 '저렇게 불교 사원이 많고 80%가 불교를 믿는다는데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더운데 뭐하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사역 장소에 도착해서 "망글라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을 때 집집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부처를 믿는다고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서툰 미얀마어로 전했음에도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짜증내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며 오히려 예수님을 찾았더니 기적같이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힘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혜려(고등부)

2014년 단기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 ① 2014년 총현의 온 성도가 동참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를 하게 하소서.
- ② 단기선교팀이 영적으로 준비된 주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은혜 중에 준비되게 하소서.
- ③ 선교를 방해하는 사탄의 꾀계와 환경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선교팀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 ④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 ⑤ 팀장들이 자신의 방법, 경험, 지혜를 포기하게 하시고
모든 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팀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불평과 오해가 없게 하시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 ⑦ 오고 가는 교통편이 안전하고, 모든 출입국 과정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 ⑧ 두고 가는 가정과 직장을 지켜 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 ⑨ 운전하시는 동역자를 주창하셔서 많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⑩ 하나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 목사님과 선교위원회와 지도자들이 성령충만하게 하옵소서.

4

주강론하여 개대된 위임독서님의 설교를 믿으세요

인생의 참된 주인

[초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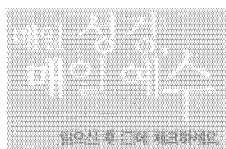
[찬송]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본문] 창세기 37:1~5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27 주일

28 월요일
□ 아침 8장

29 화요일
□ 이새 1장

30 수요일
□ 히사이 2장

31 목요일
□ 이새 3장

1 금요일
□ 두가복음 15장

2 토요일
□ 루카복음 16장

요셉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본보기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귀하게 여김 받는 이유는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라는 화려한 위치에 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 위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움 속에 있는 요셉

요셉이 형제들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1) 그의 숨김없는 □□□□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창 37:2).

요셉은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고자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요셉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복 형제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알아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숨김없이 말했던 것입니다.

2)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창 37:3~4).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 그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창 37:5).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은 모두 형들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와 형제들 사이의 질서에 대한 권위가 엄격했던 고대 사회에서 요셉의 꿈은 형제들을 화나게 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요셉

요셉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에 던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끈 그가 입은 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렁이에 던지니 그 구렁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창 37:23~24).

2)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에 가두니 그 옥은 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창 39:19~20).

요셉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질투와 미움을 받아 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셉이 겪었던 고난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었듯이,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요셉

요셉이 겪는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1)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창 37:26; 39:2).

2)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간섭하셨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하게 하셨더라”(창 39:23).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울함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 ② 휴가 중에도 보혈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소서.
- ③ 교회학교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늘 부흥하게 하소서.

교 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
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메일 육성하면서 받은 은혜를 <후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662-8200(☎ 348, 349) / E-mail. pskms1715@naver.com

본문 · 아가 8장 / 찬송가 · 505장

●●●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돌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1~2절).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있을 수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오라비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는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소망이며, 늘 함께 하고 싶은 절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신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9).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결코 맞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화목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엡 2:16).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6절). 이것은 아가서에 기록된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인을 맞은 자로서 성도의 삶과 생명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사랑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합니다. 신자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귀한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롬 5:5~6). 그러므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총의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못한 우리를 가장 귀한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증거하지 마십시오(갈 6:14).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아 8:6)

Place me like a seal over your heart; like a seal on your arm; for love is as strong as death, its jealousy unyielding as the grave. It burns like blazing fire, like a mighty flame. (Song, 8:6)

- 바알하온(11절) : 풍요의 주란 뜻. 솔로몬의 포도원 근방에 있던 마을이나 정직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은 천(11절) : 은 1천 제겔 곧 1,240의 은(14제겔은 1,400으로 보통자 4명의 하루 봉급에 해당한다).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유다 왕 웃시아 때부터 므낫세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 장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징계를 당한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거역한 행위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형식적인 제사와 무자비한 악행 때문이었습니다(2~17절). 그러나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완전히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18~20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18절)라는 하나님의 부름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 사람이 없으리라”(28~31절).

유월절 어린 양은 은혜와 심판을 뜻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곳에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땅에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심판은 엄하고 무섭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고 황폐할 만큼 병들었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ith the LORD: though your sins be as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b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 as wool. (Is. 1:18)

- 월색(13절) : 원뜻은 ‘새롭게 하다’로서 새로운 달의 첫째 날이다. 매달 1일은 그 날을 대표하는 달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일명 ‘초하루’.
- 삼오라기(31절) :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져 버릴 죄인들의 본질을 일컫는 말이다.

기도제목 ①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이사야 2장 / 찬송가 · 272장

●●● 이사야서의 특징 중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회복될 왕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타락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에게 회개하는 것만이 진정한 살길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메시야 왕국에 대한 예언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여 계속해서 행악하는 자들은 메시야의 도래 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후반부에서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거듭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죄악에 물들게 된 것은 이방 나라 때문이었습니다(6~9절). 그들은 이방의 영향을 받아 물질 만능주의, 우상 숭배, 군사적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로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며 교만해졌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11절). 여호와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빛 안에서 행하며(5절),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라(22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사 2:22)

Cease ye from man, whose breath is in his nostrils: for wherein is he to be accounted of?
(Is. 2:22)

- 칼을 쳐서 보습을(4절) : 칼은 전쟁과 살인 무기, 보습은 농사를 도구다. 결국 해방시켜 통치하는 시대는 전쟁이 아니고 평화와 참 기쁨의 시간이며 도려낼 것을 시사한다.

기도제목 ① 패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감동한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권하여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로 인수집사, 권사들이 산자되만 불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이사야 3장 / 찬송가 · 459장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1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며 의지합니까? 유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신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 성령은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11절).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듯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며 믿음으로 오직 주만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히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가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며, 고난이 따르는 복음을 증인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하여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써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며 영원의 길을 향해 갑시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실존적인 믿음의 실천을 이루는 역사가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사 3:10)

Tell the righteous it will be well with them, for they will enjoy the fruit of their deeds. (Is. 3:10)

- 복술제(2절) : 점이나 술법으로 예언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얻어내는 자로서 하나님이 심히 가증히 여기시는 존재이다.
- 얼굴에 맺을 질(15절) : 비유적인 표현으로 '무자비하게 착취, 압제하다'라는 뜻이다.

기도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속이고 속는 자, 야곱

(창세기 47:9)

속이는 자, 야곱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의지를 더 확실한 대안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장자의 욕심을 가지고 있던 야곱은 자신을 형 에서처럼 꾸며 아버지를 속이자는 어머니의 속임수에 동조하였고, 결국 시력이 떨어진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그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창 27:20).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운 가증한 사람이었습니다.

속는 자, 야곱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의 속임수는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창 29:20~23, 25). 야곱은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칠 년을 일했으나,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원하지 않는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칠 년이라는 세월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다시금 칠 년이라는 세월을 일했으나, 그는 결국 두 배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창 31:6~7).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에게만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속였습니다(창 37:31~35).

찬송	-----	다같이
성경봉독	-----	사회자
메시지봉독	-----	사회자
기도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남성 구역 예배 순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 이스라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결국을 한 마디로 평가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창 47:9). 속이고 속는 세월을 통해서 그는 매우 고생스러운 인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버지과 형을 속이는 바람에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가 된 그는 외삼촌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십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동을 착취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는 바람에 아들 요셉을 만나기까지 긴 세월을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날을 오직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달려온 야곱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생애의 고백이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은혜 아니면

이와 같이 야곱이 속이고 속는,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서 수시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로 가던 그를 벵엘에서 만나주셨고(창 28장),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 품삷도 받지 못했던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셨으며(창 31장), 복수의 칼을 갖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놓고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습

니다(창 32장).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한 야곱의 결과는 속이고 속는 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지만, 결국 그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달음질을 무사히 마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신실한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게 해 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4년 7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장철환A

집필진 | 이원웅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품]